

FOMEK ISSUE PAPER

중견기업 범위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2025. 5. 13.

목차

제1장 서론	1
1. 검토 배경	1
제2장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2
1. 현행 중소기업 규모별 범위기준	2
2.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연혁	4
3.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5
제3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국제비교	6
1. 주요국 중소기업 범위기준 국제비교	6
제4장 중소기업 현황분석 및 상향 검토 시뮬레이션	8
1. 중소기업 매출액 구간별 현황분석	8
2.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검토 시뮬레이션	10
제5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문제점	13
1. 광범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설정	13
2.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	14
3.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실효성	16
제6장 정책제언	18
참고문헌	20
[참고1] 업종별 기업규모별 평균매출액 주요 통계표	22
[참고2] 업종별 기업규모별 비중 통계표	26

[작성자]

산업정책실 이은수 실장 (les@fomek.or.kr)

산업정책실 양민석 선임 (msyang@fomek.or.kr)

[연구배경]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24.4.29.)’을 통해 10년간 조정되지 않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을 2025년 상반기 중 검토하겠다고 발표
-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 감면,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정부 시책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기업을 식별하여 정책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
- 정부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으로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해당 정책의 적용 범위와 효과성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임
- 정부의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실효적 정책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의 정합성과 정책 효과성과의 연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 국제비교와 중견기업의 현황 및 매출액 기준별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행 기준 적정성을 평가하여 과제 도출
- 주요국 중소기업 범위기준과 비교 및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년 기준)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상대적 특성과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수혜 대상의 적정성과 성장사다리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

[국제비교 및 현황분석]

- 현행 중소기업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은 최대 1,500억 원인 것에 비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2배인 영국은 최대 941억 원(5,400만 파운드), 15배인 미국은 최대 641억(4,700만 달러)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
- * 연평균 환율(’24년): 원/영국 파운드 1742.68원, 원/미국 달러 1363.98원
-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 대비 ①매출액 상한기준, ②기업 수와 ③종사자 수의 비중이 모두 현격하게 높아 정책대상 기업 범위가 넓게 분포됨
- 국내 중소기업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은 타 국가와 다르게 경기변동을 감안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물가, 산업변화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임

-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은 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내에서 형성되며, 기준 대비 약 10%로 중위값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최근 4년간 평균 0.5% 전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 2019년(0.24%), 2020(0.61%), 2021(0.46%), 2022(0.33%)

-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에 따른 실질적 수혜는 임계치에 근접한 일부 큰 규모의 중기업에 집중되며, 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내에서 활동하며, 이번 범위기준 조정의 수혜 혜택과 무관할 우려

- 중견기업의 매출액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분석 기업에서 18.7%에 해당하는 최대 492개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며, 이는 2023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292개)의 1.7배에 해당

* 전체 중견기업 기업 수 5,868개 중 매출액 규모별 기준에 의한 중견기업 2,630개(2023년)를 대상으로 분석

- 2023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별 기준에 의한 중견기업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범위를 10% 상향할 경우 214개, 20% 상향은 364개, 30% 상향은 전체 중견기업 중 최대 492개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

- 업종별 매출액 일괄 비율 상향방식은 특정 업종의 대거 보호시장 유입, 업종별 특성 미반영, 업종별 형평성 논란 및 급격한 매출액 상향으로 인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정체를 초래

-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상향할 경우 특정 업종(도매 및 소매업, 건축업)과 특정 매출 구간(현행 1,000억 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대거 편입 예상

* 도매 및 소매업: 최대 100개(20.3%), 건설업: 46개(9.4%)

[중소기업 범위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은 적용 범위가 넓고, 지원 방식이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성장사다리 정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 설정이 요구됨

- 첫째, 광범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재검토 필요

- 중소기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재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 그 규모는 대거 확대될 전망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단순 상향보다는 현재 기준의 적정성, 정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현행 유지,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을 보호·육성→혁신·성장으로 전환
 -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은 총 651개(법률 295개, 시행령 356개)('25.3.24. 기준)에 달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18년 1,422개(21.7조 원)에서 '23년 1,646개(35조 원)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
 - 정부가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수준은 OECD 주요 20개국 중 1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기업 대비 생산성 격차도 OECD 31개국 중 4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남
 - 현 상황에서 매출기준의 단순 상향을 통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는 2015년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단일지표로 변경한 본래 취지와도 상충됨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목표를 기업 규모에 한정된 보호·지원에서 벗어나 주요국에 비해도 낮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관점에서 중견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은 중견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기업이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보호 시장에 머물러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정체됨
 - '중견기업 성장 촉진전략'(산업통상자원부, '23.1.16.),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중소벤처기업부, '24.8.21.),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기획재정부, '24.6.11.) 등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도 필요
 - 중소기업 범위기준 결정은 단시안적인 정책변경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지원대상의 적합성, 정책 효과성, 시장경쟁의 원리와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은 중견기업 지위 변경을 포함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차원에서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의 참여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 공동 논의 및 외부 검증을 통해 추진할 사안임

제1장 서론

1. 검토 배경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24.4.29.)’에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을 2025년 상반기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우리나라는 2015년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시행하면서 중소기업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 하도록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계는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조정을 검토 중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준으로 작동
 - 중소기업의 지위를 통해 조세 혜택 및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정부 조달 접근이 쉽고, 규제 및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도 존재
 - 중소기업의 지원범위는 작은 규모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기업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정부 시책으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중소기업 기준 변경은 한정된 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고려된 지원대상 선정과 정책지원 효과성이 연계되어야 함
- 정부는 최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 사다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도적인 변화임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자,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첫 관문이기에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중견기업 성장경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역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의 변경임
 - 이번 중소기업 기준 적정성 검토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의 관점에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중견기업 범위 결정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현행 범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제2장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1. 현행 중소기업 규모별 범위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됨

〈표 1〉 중소기업 범위기준과 적격성 요건

구분	규모기준	영리성	독립성	기타
기업 (회사)	매출액 상한기준, 자산총액 상한기준	영리목적의 사업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	해당	불필요 (비영리법인 허용)	해당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인증 필요
협동조합 (연합회)	해당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나 가능)	해당	「협동조합기본법」
조합·연합회	해당	해당	해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중소기업의 요건이 되는 규모기준을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으로 제시함
 - 중기업을 충족하는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은 400억 원 이하, 600억 원 이하, 8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이하, 1,500억 원 이하의 5개 구간으로 구분
 - 소기업을 충족하는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은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의 5개 구간으로 적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 규모의 또 다른 기준인 자산총액은 업종에 관계없이 ‘5,00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함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수도업' 일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일부는 중분류 기준이 적용됨¹⁾

〈표 2〉 중기업 및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업 종		분류기호	중기업	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제조업 (6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 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 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 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80억 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20억 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 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 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 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 원 이하

1) '수도업(E36)'과 '임대업(N76)'의 경우, 통계분류 변동으로 인한 대분류 변경으로 중분류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중분류에 따른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님(최세경, 2020)

제조업 (6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 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 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 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30억 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 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 원 이하
부동산업		L		
임대업		N76		3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 원 이하

2.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연혁

- 중소기업은 1966년 12월 6일 「중소기업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업종별 규모기준이 마련됨
- 업종별 규모기준을 단일 기준(상시근로자 수)로 변경('82.12.31.)
 - 제조업, 광업, 운송업은 300인 이하, 건설업은 200인 이하, 상업 등 기타서비스업은 20인 이하로 규정
 -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최초 도입
- 업종분류를 대분류 체계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업 규모기준 확대('09.3.27.)
 - 대·중·소·세·세세분류별 32개 업종에서 대분류 기준 18개 업종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강화('11.1.1.)
 - 관계회사 제도 도입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도 제외
- 매출액·자기자본 상한선을 도입하고 독립성 기준 확대('12.1.1.)
 -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 제외
 -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자회사를 주식회사에서 모든 회사로 확대
-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 및 제도 정비('15.1.1.)
 -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으로 조정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모회사의 경우, 비영리법인까지 적용 확대

3.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한계선상의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함(엄부영, 2023)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이 1966년 12월 제정된 이후 16년 동안 유예제도 없이 운영되다가 1982년 12월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1982년 이후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주기적으로 재정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장을 기피하는 악용사례가 다수 발생
 - 중소기업 중 졸업 유예제도를 반복적으로 향유하며 성장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영세 소규모 기업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함
 - 졸업 유예제도는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1회만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
-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5년('24.8.21.)으로 확대 시행하며, 중소기업자 지위 기간 연장 및 지원 혜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3장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국제비교**

1. 주요국 중소기업 범위기준 국제비교

-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표 3>은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요약 제시함
- 주요 국가들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종사자 및 통화 기반으로 판별함
 - EU 국가들은 종사자 기반 기준과 통화기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병행주의’ 채택
 - EU 국가들은 종업원 수 250명 미만 기준 충족 후 매출액 5,000만 유로(738억 원) 또는 자산 4,300만 유로(634억 원) 미만 중 한 가지 조건 충족 여부 판단
 - 미국과 일본은 업종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따르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 선택
 - 미국은 제조업과 광업은 업종별 종업원 수 기준 500명 ~1500명 미만이며, 타 업종은 매출액 800만 달러(109억 원)에서 4,700만 달러(641억 원) 미만 기준 채택
 - 일본은 업종별 자본금 기준 5천만 엔(5억 원)에서 3억 엔(27억 원) 이하 또는 종업원 수 50 ~300명 이하 중 1가지 조건만 충족 시 중소기업으로 판단
 - 영국은 ‘택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과 다르게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중소기업으로 판단
 - 영국은 ①종업원 수 250명 미만, ②매출액 기준 5,400만 파운드(941억 원) 미만, ③자산 2,700만 파운드(470억 원) 미만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중소기업으로 판단
-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한국처럼 법률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EU와 일본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정하는 법률, 협약, 지침 등의 개정과정에서 특별한 조정 사유 발생 시 조정
-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매출액 단일지표로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매출액 기준을 채택한 타 국가는 1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 우리나라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기에 경기변동을 감안한 설계가 포함되며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
- 경제 규모가 큰 주요 국가*와 비교 시에도 현재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상한 매출액 기준은 매우 높은 수준임
 -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EU나 미국 및 영국과 비교하면 업종별 기준이 달라 1:1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매출액 기준이 1,500억 원인데 반해, 미국은 약 641억 원(4,700만 달러), EU는 738억 원(5,000만 유로), 영국은 941억 원(5,400만 파운드)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중소기업 범위기준인 매출액 기준은 경제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이며, 평균 3년 매출액 산정 등의 현 제도는 물가, 산업변화 등의 경기변동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
-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일시적 상황변화보다 장기적 추세를 이미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3〉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비교

구분	한국	EU	미국	일본	영국
경제규모*	약 2,551조 원 (\$1조 8699억)	약 2경 6,466조 (\$19조 4032억)	약 3경 9,784조 (\$29조 1678억)	약 5,552조 (\$4조 701억)	약 4,893조 (\$3조 5875억)
규모별 구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 법상 공식적인 정의는 없고, 통계관리를 위해 구분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소기업 소그룹 중기업 중그룹
중소기업 비중	99.9% 중기업(1.5%), 소기업(3.3%), 소상공인(95.1%)	99.8% 중기업(0.9%), 소기업(5.9%), 영세기업(93%)	99.7% 중기업(2.2%), 소기업(12.3%), 영세기업(85.2%)	99.7% 중소기업(14.8%), 소규모기업(84.9%)	98.8% 중기업(5.5%), 소상공인(93.4%)
종사자수 비중	81.0%	65.2%	45.9%	69.7%	60.0%
중소기업 규모기준	①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 1,500억원 이하 그리고 ②자산 5,000억 원 미만	①종업원수 250명 미만 그리고 ②매출액 5,000만 유로(738억원) 미만 또는 ③자산 4,300만 유로(634억원) 미만	①업종별 종업원수 500명~1,500 명 미만 또는 ②매출액 800만(109억원) 달러~4,700만 (641억원) 달러 미만	①업종별 자본금 5천만엔 (5억원)~3억엔(27억원) 이하 또는 ②종업원수 50~300명 이하	①종업원수 250명 미만 ②매출액 5,400만 파운드 (941억원) 미만 ③자산 2,700만 파운드 (470억원) 미만
	①, ②, 모두 충족	① 충족 그리고 ②,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②, 중 하나만 충족 -업종별 상이	①, ②, 중 하나만 충족	①, ②, ③ 중 2가지 이상 충족**
업종구분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업종 구분 X	세세분류 (4자리)	대분류	업종 구분 X
조정주기	5년	20년 이상	5년	20년 이상	비정기적
조정이력	'09-'11-'15	'97(최초)-'03 - '21년 검토시 유지 결정	'14-'17-'19-'22	'66(최초)-'73-'99	'08-'15-'25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의 달러 표시 경제 규모를 2024 기준으로 원화 환산, 환율기준(2024년 평균) : 원/미국달러 1,363.98원, 원/엔(100엔) 900.36원, 원/파운드 1742.68원, 원/유로 1475.05원

** 영국「Companies Act 2006」

*** EU 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2023/2024, 중소기업중앙회 2024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제4장 중소기업 현황분석 및 상향 검토 시뮬레이션

1. 중소기업 매출액 구간별 현황분석

- OECD 주요 국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을 제외한 기업 중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이 전체의 평균 50%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그 비중은 30% 초반에 불과(맥킨지 코리아, 2023)
- 현행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 규모별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기업 수와 종사자 수가 중소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종사자 수는 현격히 부족한 상황
-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업 수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1% 이하, 중견기업은 1.5% 내외, 중소기업은 97% 이상으로 나타남

〈표 4〉 기업규모별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기업수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전체	0.90%	0.91%	1.00%	1.25%	1.23%	1.28%	97.85%	97.86%	97.72%
제조업	0.95%	1.05%	1.17%	2.76%	2.72%	2.92%	96.29%	96.23%	95.91%
도매 및 소매업	0.54%	0.56%	0.64%	0.85%	0.85%	0.85%	98.61%	98.60%	98.51%
숙박 및 음식점업	0.12%	0.11%	0.13%	0.20%	0.17%	0.16%	99.68%	99.72%	99.72%
정보통신업	1.71%	1.56%	1.65%	1.91%	1.91%	2.34%	96.38%	96.53%	96.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68%	0.55%	0.60%	0.72%	0.69%	0.77%	98.60%	98.76%	98.63%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6%	0.98%	0.88%	1.24%	1.20%	1.20%	97.70%	97.83%	97.92%

종사자수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체	20.3%	20.8%	21.0%	13.0%	12.6%	13.2%	66.7%	66.6%	65.8%
제조업	23.5%	24.6%	25.1%	17.6%	17.5%	18.2%	58.9%	57.9%	56.7%
도매 및 소매업	17.7%	17.2%	16.7%	9.8%	9.8%	10.0%	72.5%	73.0%	73.4%
숙박 및 음식점업	18.0%	18.9%	18.6%	10.6%	9.9%	8.5%	71.4%	71.2%	73.0%
정보통신업	24.5%	22.9%	23.9%	13.0%	13.1%	13.2%	62.6%	64.0%	62.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7%	6.8%	7.5%	9.8%	10.0%	10.7%	82.4%	83.4%	81.8%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4%	13.0%	11.2%	19.4%	20.5%	23.2%	67.2%	66.5%	65.6%

* 주: 대기업은 중견기업을 제외한 값,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값임.

**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별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이용.

- 2019년과 2022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현 중소기업 매출기준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한도의 중간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 ([참고 1]에 <표 1>, <표 2>)
- 기업을 대기업,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통계청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활용하여 2019년과 2022년 기준 기업 규모별 평균 매출액을 산업별로 [참고 1]에 나타냄
- 산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의 평균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약 10% 수준으로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초과 기업 비중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평균 분포를 보았을 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업 규모별 산업 내 비중을 보면, 2022년 기준 전 산업 기준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비중이 0.1%로 대다수의 기업이 소상공인(95.1%)과 중소기업(4.8%)에 해당
- 2019년과 2022년 기준 기업 규모별 기업 수의 비중을 산업별로 살펴보기 위해 [참고 2]를 제시함
- 산업별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비중을 더하면 100에 해당
-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비중이 1% 미만에 해당하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1%가 넘는 산업이 일부 존재
- 중기업→중견기업 성장비율은 약 0.5% 전후 수준에 불과(<표 5>)
-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은 2019년(0.24%), 2020(0.61%), 2021(0.46%), 2022(0.33%)
-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성장한 기업은 267개에서 663개로 연도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중견→중소기업으로 이탈한 기업도 225개에서 561개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편차는 비슷

<표 5> 중소↔중견↔대기업 이동기업 현황

구분	중기업	중견기업 진입(+)					중견기업 이탈(-)				
		중소기업	성장 →	중견기업	부진 ←	대기업	중소기업	회귀 ←	중견기업	성장 →	대기업
'22	123,647	+410		+421		+11	△208		△296		△88
'21	111,738	+510		+518		+8	△356		△561		△205
'20	104,203	+639		+663		+24	△274		△381		△107
'19	100,293	+242		+267		+25	△208		△225		△17

* 신규설립, 휴·폐업·합병해산,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한 신규 발급에 따른 이탈은 제외

** 자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본통계('19년 ~'23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19년 ~'22년)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평균 매출은 현 중소기업 기준 내에서 유지되고, 매출기준 중간에도 못 미치는 10% 수준이며,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전체 중기업 중 0.5% 전후 비중에 불과
- 현행 중소기업 중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5.1%로 그 비중이 너무 높아, 현행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미치는 기업 수도 작으며, 매출 상향으로 인한 지위 변경이 예상되는 중기업의 수도 미비함
-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에 따른 실질적 손해는 매출액 기준 임계치에 근접한 일부 큰 규모의 중기업에 국한되고 이 집단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소규모 중소기업에 자원 배분을 잠식시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정책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

2.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검토 시뮬레이션

- 본 장에서는 2023년 결산 중견기업의 현황자료 중 매출액 규모 기준에 따라 판명된 2,630개를 대상으로 매출액 구간별 10%, 20%, 30% 기준 상향 시 변화를 검토·분석하였음
- (업종별 10% 상향)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10% 상향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는 214개 기업 중 116개가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 구간에 분포하여 해당 구간에 집중 편입 현상 발생
 - 전체 분석 대상 2,630개(2023년 기준) 중견기업 중 214개(8.6%)의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며, 이 규모는 2022년→2023년 중견기업 수 증가 규모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편입 현상이 두드러짐
- (업종별 20% 상향)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20% 상향하는 경우도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매출 상향 구간이 여전히 전체 중소기업 편입기업 364개 중 216개(59.6%) 기업이 집중 편입됨
 - 전체 분석 대상 기업 중 364개(13.8%)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어, 이 또한 2022년→2023년 중견기업 수 증가분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매출 상향에 따라 특정 업종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는 현상은 여전
- (업종별 30% 상향)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30% 상향하는 경우에는 더욱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상향 구간에 중소기업 편입 현상이 부각되며, 전체 482개 편입기업 중 295개(60%)가 집중
 - 도매 및 소매업(100개, 20.3%) 및 건설업(46개, 9.4%) 등 특정 업종 쏠림이 더욱 부각되며, 타업종에 비해 중견기업 기업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 발생
- 매출액 규모기준을 상향할 경우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18.7%에 해당하는 최대 492개의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에 따라 판정된 중견기업(2,630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기준을 10% 상향할 경우 214개, 20% 상향은 364개, 30% 상향은 492개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

- 비율별 매출액 기준 상향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며, 특정 업종과 특정 매출액 구간이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거 편입되는 현상 발생
- 분석 대상이 매출액 규모기준 충족 기업으로 제한된 만큼 해당 결과는 보수적으로 추정되었으며, 관계기업, 피출자기업 등 독립성 요건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중소기업으로 편입 가능한 기업 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일괄 매출액 비율 상향은 각 업종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며, 어렵게 현재 규모로 성장을 많이 한 업종(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과 특정 현행 매출 구간(1,000억원)에서 오히려 더 많은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현행 기준에서 매출액 상향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규모보다 더 큰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
- 단순한 매출기준 상향은 중소기업 편입으로 인한 일부 기업의 단기적 수혜를 확대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보호 시장의 급속한 팽창, 정책 실효성 저하, 성장 유인 약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기준의 보수적 유지 또는 재설계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

〈표 6〉 전업종 매출액 기준 상향시 중견→중소기업 편입기업 변화표

업종명	현행 매출액 기준	30% 상향		20% 상향		10% 상향	
		매출액 기준	편입 기업 수	매출액 기준	편입 기업 수	매출액 기준	편입 기업 수
총계	-	-	492	-	364	-	214
소계	-	-	39	-	26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	1,950억	6	1,800억	4	1,650억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		0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3		1
1차 금속 제조업			18		11		7
전기장비 제조업			11		8		4
가구 제조업			0		0		0
소계	-	-	295	-	216	-	116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억	1,300억	1	1,200억	1	1,100억	1
광업			0		0		0
식료품 제조업			16		14		8
담배 제조업			0		0		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5		5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1		1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1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26		15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8		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9		6		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		15		10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20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25		15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1		1		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2		2
수도업			0		0		0
건설업			46		33		18
도매 및 소매업			100		69		33
소계	-	-	73	-	54	-	36
음료 제조업			3		2		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1		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		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3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억	1,040억	2	960억	2	880억	1
그 밖의 제품 제조업			0		0		0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3		2		2
운수 및 창고업			23		21		15
정보통신업			26		18		13
소계	-	-	40	-	32	-	22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0		0		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10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제외)	600억	780억	17	720억	13	660억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		5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2		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2		1
소계	-	-	45	-	36	-	26
숙박 및 음식점업			4		3		2
금융 및 보험업			13		12		11
부동산업	400억	520억	27	480억	21	440억	13
임대업			0		0		0
교육 서비스업			1		0		0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본통계, 2023

** 본 데이터는 기업 규모별 해당기업의 '21년, '22년, '23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함

제5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문제점

1. 광범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설정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확정한다는 것은 정책지원을 위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정연승 등(2008), 양현봉(2006), 신상철(2014), 김종일(2013), 이병기(2013) 등의 다수의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가 매우 넓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도모하는 시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특히, 최세경(2020), 정은애(2021)는 2015년 업종별 매출액 단일지표 변경 후 전 업종대상 중소기업 범위 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물가인상률,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 국가마다 중소기업 판별 기준은 상이하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500억 원으로 미국, EU, 영국의 매출액 기준의 2배 수준으로 높음
 - 현행 중소기업 기준이 지나치게 넓게 정의되어 있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이 대형 우량기업에 집중될 우려(한국금융연구원, 2024)
- 현행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기준을 상향할 경우 주요국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중소기업 규모는 확대될 전망
-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상향은 기존의 99.9%의 중소기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매출액 규모별 기준에 따라 판명된 2,630개를 대상으로 매출액 구간별 기준 상향 시 최대 492개(18.7%)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편입하며, 2022년→2023년에 중견기업 수 증가 규모의 1.7배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편입하는 결과를 초래함
 - 매출액 규모별 기준 일괄 상향 시 업종별 중소기업 편입 규모 차이가 너무 크며, 특정 업종이 대거 보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대두됨. 편입기업 규모 중 도매 및 소매업이 100개(20.3%), 건설업이 46개(9.4%)로 특정 업종 편중 현상이 발생하여 검토가 요청됨
- 본 보고서는 매출액 규모별 기준에 의한 중견기업 2,630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다른 기준에 의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 수는 더 확대될 전망

2.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준용하여 보호·지원하는 법령은 총 651개(법률 295개, 시행령 356개)에 달함(‘25.3.24. 기준)
- 중소기업 보호 지원(개념 정의 또는 선언적 준용 포함)하는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촉진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95개에 달함
- 법령 외에도 고시 공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고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8년 1,422개 21.7조 원에서 ‘23년 1,646개 35조 원으로 증가
-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18년 297개에서 ‘23년 530개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예산 규모도 19.6조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32.5조 원으로 65.8% 증가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은 ‘18년 1,125개에서 ‘23년 1,116개로 감소했으나, 지원예산은 2.1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가

〈표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단위: 개, 조원)

구분	전체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2018	1,422	21.7	297	19.6	1,125	2.1
2019	1,653	25.2	344	22.8	1,309	2.4
2020	1,622	27.7	331	24.8	1,291	2.9
2021	1,588	31.9	310	29.1	1,278	2.8
2022	1,597	40.6	341	37.4	1,256	3.2
2023	1,646	35.0	530	32.5	1,116	2.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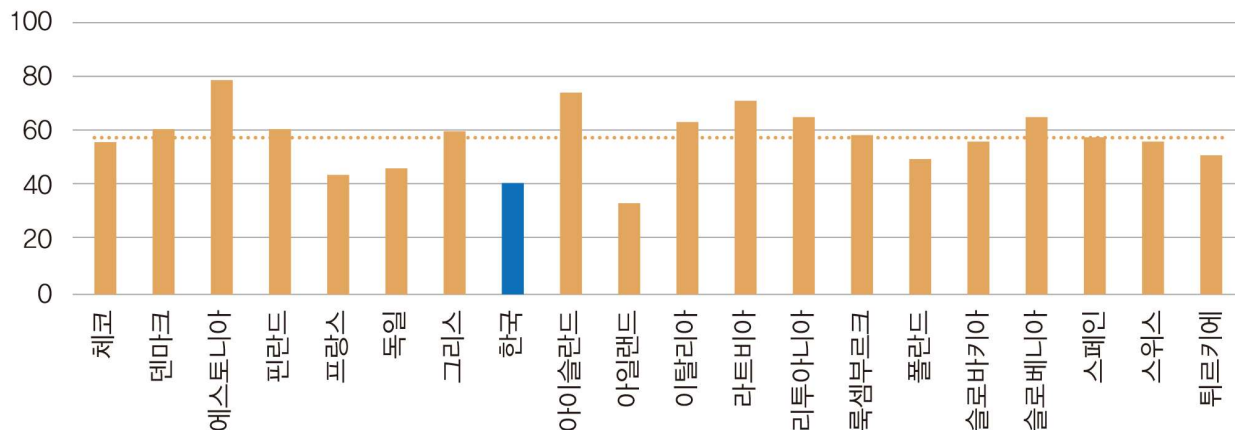
- OECD 국가와 공공조달 규모를 비교하여도 OECD 주요국 중 일본 다음으로 정부지출 대비 공공조달 규모가 큼*

* OECD(2021년): 일본(40.6%), 한국(38.1%), OECD-EU(28.7%), 미국(22%), 영국(32.2%)

- 정부가 큰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최하위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OECD 20개국 중 19위로, 그 수준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 <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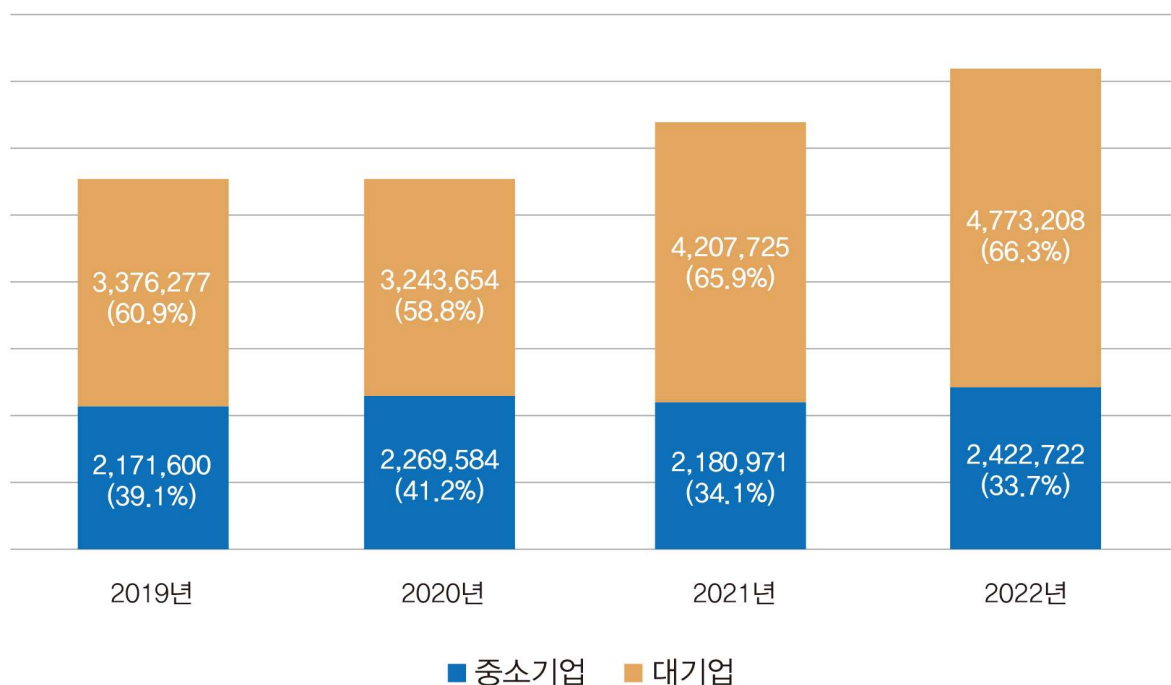
<그림 1> OECD 국가별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율



* OECD,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ISIC Rev.4(2020)

<그림 2> 중소기업 vs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규모별 창출하는 부가가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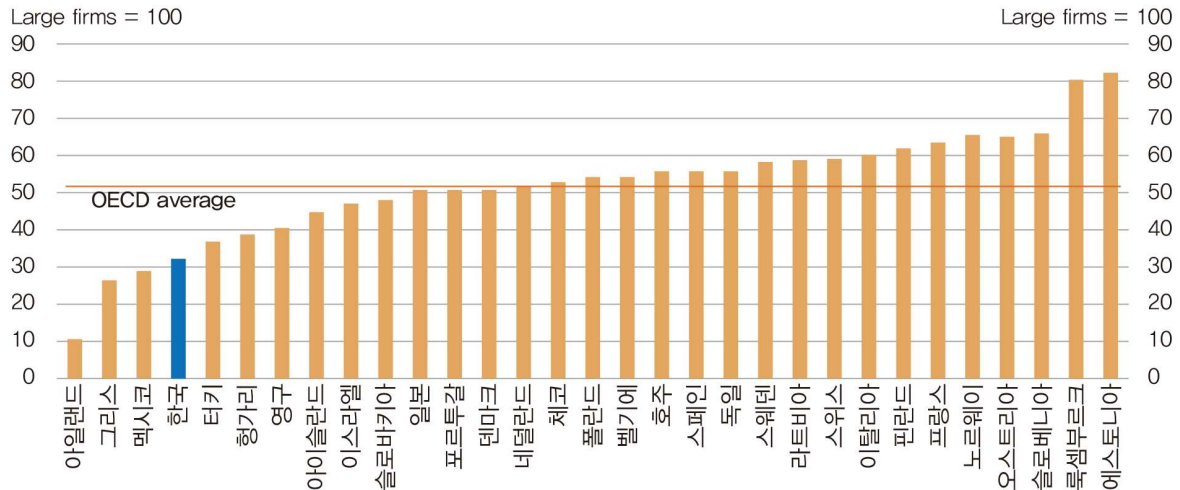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위상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250인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2.5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큰 수준을 유지<그림 3>
 - OECD 31개국 중 아일랜드,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그 격차가 4위로 큰 국가임

〈그림 3〉 OECD 국가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 OECD,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8.

3.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실효성

- 단순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은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의 모수만 확대
- 매출기준 단순 상향을 통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장사다리 작동의 역제로 이어져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함
- 매출액 기준이 과대 설정될 경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다른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수혜를 잠식시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우 규모가 큰 특정 우량 중기업들만 집중 수혜대상이 될 우려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부터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총매출액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제도 내 제품 대부분이 반복 지정**되어 소수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함을 지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수 집중률(상위 20% 매출기업): ('17년) 91.9%, ('18년) 91.8%, ('19년) 91.5%

** 중소기업자간 제품 반복지정 현황: ('18년) 589개(96.6%), ('21년) 581개(91.9%), ('24년) 596개(97.7%)

- 최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의 확대로 일시적으로 중소→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는 정체될 전망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향 시 최대 492개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는 더욱 감소할 상황
-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을 통해 기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대거 유입 시 정부의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 실현에 난항을 겪게 될 우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에서 2030년까지 중견기업의 성장 목표를 기업 수 1만 개, 수출 200억 원으로 설정하여 정책지원을 하고 있음

제6장 정책제언

- 2015년 이후 처음 추진되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약 전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소기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 수의 증가로 귀결될 우려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검토·분석 결과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중소기업 범위의 확대에 의해 제도 본래의 목적과 정책 방향성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성장 유인 역시 약화 될 가능성 대두
- 본 보고서의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함
- 첫째,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재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경제 규모가 큰 주요 국가와 비교한 국제기준에 비춰 보아도 넓은 범위기준을 가지고 있음
 - 규모별 기준 중견기업의 매출액 상향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최대 492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며, 2022년→2023년 동안 성장한 292개 대비 1.7배(492개) 수준임
 - 중소기업 범위기준인 매출액 기준을 단순 상향하기 보다는 현행제도의 적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하향, 현행 유지,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보호·육성→혁신·성장으로의 전환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보호 위주의 정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와 정부 지원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중소기업 수의 확대를 초래하는 매출액 기준 상향은 부적합
 - 중소기업 지원방식은 대규모의 재정자금이 직접지원방식으로 경중 없는 나열식 지원으로 인해 효과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저조한 상황
 - 정부의 지속적인 큰 규모의 재정지원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 2015년 중소기업 규모 기준 변경은 기업의 고용과 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KDI, 2022)
 - 정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보다는 주요국과 같이 중소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산성 제고 및 혁신과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

- 셋째,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강화
 -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23.4.18.)되면서 중견기업의 법적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으나, 중소기업 기준 변경과 직결된 중견기업 정책과도 충돌될 가능성이 존재
 -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관점에서 기존 중견기업 정책과 연계한 정책 목표를 전제해야 함
 - * 중견기업 성장 촉진전략(산업통상자원부, '23.1.16.),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기획재정부, '24.6.11.)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연장(3년→5년(2024.8.21.) 등 전체 중소기업자의 일시적 규모 확대도 고려한 적절한 중소기업 규모 설정이 필요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중소벤처기업부, '24.8.21.),
- 이에, 중소기업의 기준 상향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정책변경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지원대상의 규모의 적합성, 정책의 효과성, 시장경쟁의 원리와 기존 정책*의 연계가 전제는 필수적임
 - * 중견기업 성장 촉진전략(산업통상자원부, '23.1.16.)
 - 한편, 현재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이는 중견기업 지위,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한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이기에,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 부처 공동 논의 및 외부 검증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 설계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함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민호, 2024, 「기업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2024 KDI 컨퍼런스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 KDI.
- 김민호·박우람, 2022,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KDI.
- 김재현, 2015,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 김종일, 2015,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경제연구원.
- 김주일, 2019, 「직접지원 vs 간접지원: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기술혁신연구』, 제27권 제1호.
- 신상철, 2014, 『소기업 범위 검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송승헌·이용진·임정수·성정민·경우선·구원모·송영우·김수용·황재원·황진하, 2023, 「Korea's next S-curve: A new economic growth model for 2040」, McKinsey & Company.
- 엄부영, 2023, 『중소기업 유예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소벤처연구원.
- 이병기, 2013,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 장우현·강희우·배진수, 2021, 『공공조달 제정지출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장유진, 2024,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한국무역협회.
- 정은애, 202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연구원.
- 정연승·권선주·안병립, 2008, 「중소기업의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0권 제2호.
- 최세경, 2020, 『중기업 및 소기업 범위 개편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한창용·선용욱, 2024,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연구: 성장회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연구원.

[정책자료]

- 기획재정부(2024.6.11.),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 산업통상자원부(2023.1.16.),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 중소벤처기업부(2021.4.29.),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 중소벤처기업부(2022.12.1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2024.4.28.), 「중소기업 도약 전략」.

[통계자료]

기획재정부(2024.6.11.),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해외 중소기업 통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해외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4, 「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2023/2024」, p2.

OECD, 2024, 「OECD data archive 2020, Employee by Business size」.

OECD, 2024, 「Economic Surveys: Korea」.

IMF, 2024, 「World Economic Outlook」.

[참고1] 업종별 기업규모별 평균매출액 주요 통계표

〈표 1〉 업종별 기업규모별 평균매출액(2019년)

(단위: 억 원)

산업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					
		전체	소상 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대기업
전 산업		8.2	1.6	19.3	112.3	45.4	3,399.2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이하	2.8	1.7	16.1	151.8	23.1	244.9
광업	1,000 이하	11.2	2.5	37.1	164.4	78.0	270.9
제조업		35.0	3.8	37.2	248.3	78.5	5,006.5
식료품 제조업	1,000 이하	17.0	2.4	41.7	275.1	84.9	2,814.4
음료 제조업	800 이하	61.0	1.9	31.6	270.8	89.5	2,538.1
담배 제조업	1,000 이하	3,844.5	1.9	0.0	0.0	0.0	10,569.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00 이하	11.2	3.9	30.7	177.7	66.9	1,266.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 이하	14.6	2.9	36.7	335.2	110.1	2,860.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 이하	12.4	3.1	35.0	333.8	106.3	1,945.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00 이하	10.2	3.4	30.7	185.5	58.4	1,23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 이하	30.6	5.6	33.8	229.8	79.4	2,076.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0 이하	5.7	2.6	28.6	182.1	50.9	369.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0 이하	2,634.4	8.0	54.3	251.6	101.5	48,175.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00 이하	117.9	5.6	47.5	300.6	105.9	5,33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0 이하	228.6	4.8	44.3	372.0	141.4	2,237.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0 이하	28.6	5.3	33.5	204.7	79.1	2,243.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 이하	32.1	5.1	45.0	229.7	77.0	1,874.2
1차 금속 제조업	1,500 이하	145.0	7.9	41.6	349.9	126.7	5,716.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00 이하	12.2	4.0	35.0	265.7	58.9	1,691.8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 이하	138.0	5.0	39.8	296.9	91.4	12,644.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 이하	19.7	4.1	30.6	218.2	69.6	1,464.0
전기장비 제조업	1,500 이하	31.0	4.4	40.2	332.8	91.0	3,841.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 이하	20.8	4.6	39.9	256.3	72.3	2,04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0 이하	158.4	5.0	37.2	295.5	95.4	5,95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00 이하	82.9	4.6	32.9	204.1	63.7	9,250.1
가구 제조업	1,500 이하	9.7	3.0	33.2	275.7	55.1	5,323.0
기타 제품 제조업	800 이하	4.6	2.0	27.0	177.3	47.9	859.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00 이하	2.8	1.3	8.0	25.1	22.4	893.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00 이하	7.5	0.2	25.8	333.4	81.4	3,949.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9.4	3.2	15.6	87.5	43.8	503.2
수도업	1,000 이하	-	0.9	26.3	0.0	26.3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800 이하	-	1.8	10.8	92.3	31.4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800 이하	21.1	3.7	16.4	86.5	45.3	505.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800 이하	16.0	1.8	12.6	205.6	92.1	0.0
건설업	1,000 이하	10.0	2.6	30.7	195.0	63.6	3,378.7
도매 및 소매업	1,000 이하	7.9	2.5	20.1	129.2	60.1	3,207.2
운수 및 창고업	800 이하	3.4	1.0	25.9	184.9	60.8	2,702.6
숙박 및 음식점업	400 이하	2.0	1.2	5.3	21.8	9.6	1,960.7
정보통신업	800 이하	14.9	1.1	14.3	146.8	34.7	1,884.4
금융 및 보험업	400 이하	109.5	2.2	18.0	170.7	53.3	7,370.9
부동산업	400 이하	1.5	0.4	8.6	84.4	44.5	85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0 이하	5.1	1.2	9.5	83.2	20.8	799.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1	1.0	9.8	92.3	27.5	818.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600 이하	6.8	0.8	8.6	99.4	24.3	643.1
사업 지원 서비스업	600 이하	6.1	1.0	10.0	91.7	29.3	758.5
임대업; 부동산 제외	400 이하	5.7	1.4	11.6	78.3	23.4	1,594.7
교육 서비스업	400 이하	1.0	0.6	4.4	27.8	12.6	516.0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 이하	8.9	3.2	6.5	32.5	19.4	90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0 이하	1.7	0.7	6.9	103.7	21.9	536.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 이하	0.9	0.5	5.6	24.0	13.0	570.3

* 주: 1)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포함하며 소상공인은 제외됨.

2) 산업별 평균매출액은 해당 규모의 기업 매출액을 기업 수로 나누어 계산.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산업중분류별·기업규모별 매출액과 기업수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2〉 업종별 기업규모별 평균매출액(2022년)

(단위: 억 원, %)

산업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					
		전체	소상 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대기업
전 산업		9.3	1.7	21.0	120.1	52.7	4,010.2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이하	3.1	1.7	18.8	176.9	30.7	289.5
광업	1,000 이하	14.6	3.2	43.8	175.6	95.3	417.0
제조업		41.4	4.0	41.0	270.5	89.8	6,352.3
식료품 제조업	1,000 이하	20.0	2.6	45.5	295.9	97.3	3,351.2
음료 제조업	800 이하	62.7	2.4	43.8	288.3	100.4	2,785.8
담배 제조업	1,000 이하	4,505.1	3.0	0.0	0.0	0.0	12,383.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00 이하	10.7	3.6	32.2	195.7	71.0	1,464.8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 이하	11.5	2.8	40.9	340.5	103.8	3,356.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 이하	8.6	2.6	39.5	398.7	108.9	1,509.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00 이하	10.9	3.5	33.6	198.8	67.6	1,094.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 이하	32.1	5.5	36.4	228.9	85.3	2,737.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0 이하	5.6	2.7	30.1	209.5	57.7	516.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0 이하	4,769.9	11.1	62.2	348.5	166.8	90,684.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00 이하	137.0	5.9	49.6	335.8	122.3	6,416.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0 이하	275.2	5.2	51.6	393.4	159.7	2,923.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0 이하	30.7	5.6	34.9	211.9	84.2	2,372.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 이하	34.6	5.3	49.8	269.1	86.8	2,384.9
1차 금속 제조업	1,500 이하	191.1	9.1	47.7	436.9	165.3	7,970.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00 이하	14.3	4.5	39.0	293.4	68.8	2,195.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 이하	169.7	5.0	43.4	343.9	111.3	16,256.2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 이하	24.7	4.4	33.9	226.2	80.9	2164.9
전기장비 제조업	1,500 이하	48.9	4.7	44.6	341.8	101.7	7208.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 이하	24.4	5.0	45.3	299.6	86.7	2276.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0 이하	179.5	5.4	41.4	330.2	109.1	7637.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00 이하	71.0	4.9	33.4	230.6	65.0	9171.2
가구 제조업	1,500 이하	9.6	3.2	35.4	275.9	56.0	3884.5
기타 제품 제조업	800 이하	4.2	1.9	30.3	187.5	55.1	1092.8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00 이하	4.5	1.5	8.0	34.4	32.7	106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00 이하	8.3	0.4	24.7	361.2	98.3	5738.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3	3.4	16.0	97.6	52.2	456.3
수도업	1000 이하		0.7	11.7		11.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800 이하	13.4	1.8	11.8	100.7	37.6	715.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800 이하	23.0	3.8	16.7	96.4	53.7	417.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800 이하	-	2.4	11.6	-	11.6	-
건설업	1,000 이하	10.0	2.7	33.7	210.1	73.0	3677.2
도매 및 소매업	1,000 이하	8.2	2.3	21.5	144.9	72.7	3611.9
운수 및 창고업	800 이하	4.8	1.2	26.0	224.5	76.0	3676.2
숙박 및 음식점업	400 이하	2.3	1.4	6.0	23.3	11.3	2482.8
정보통신업	800 이하	13.1	1.1	15.4	155.0	38.7	1948.4
금융 및 보험업	400 이하	146.7	3.0	19.7	168.1	58.2	9244.9
부동산업	400 이하	1.7	0.4	8.8	93.5	49.9	72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0 이하	5.3	1.3	10.5	88.2	25.3	906.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0	1.1	11.3	95.5	32.0	1101.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600 이하	5.4	0.8	9.3	102.6	25.8	639.8
사업 지원 서비스업	600 이하	7.4	1.1	11.8	96.4	35.1	1111.9
임대업; 부동산 제외	400 이하	7.2	1.6	13.7	79.0	30.4	1870.8
교육 서비스업	400 이하	1.1	0.6	4.9	28.4	14.0	699.9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 이하	10.4	3.3	6.9	32.5	22.1	82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0 이하	1.8	0.8	8.5	134.9	30.5	429.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 이하	1.0	0.5	6.2	25.5	15.4	770.1

* 주: 1)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포함하며 소상공인은 제외됨.

2) 산업별 평균매출액은 해당 규모의 기업 매출액을 기업 수로 나누어 계산.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산업중분류별·기업규모별 매출액과 기업수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참고2] 업종별 기업규모별 비중 통계표

〈표 3〉 업종별 기업규모별 비중(2019년)

(단위: 억 원, %)

산업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				
		소상 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대기업
전 산업		94.7	3.7	1.5	5.2	0.1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이하	95.6	4.1	0.2	4.3	0.1
광업	1,000 이하	89.3	7.0	3.3	10.3	0.3
제조업		88.1	9.2	2.2	11.4	0.5
식료품 제조업	1,000 이하	92.7	5.7	1.3	7.0	0.3
음료 제조업	800 이하	89.2	6.7	2.1	8.8	2.0
담배 제조업	1,000 이하	63.6	0.0	0.0	0.0	36.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00 이하	90.7	6.9	2.3	9.2	0.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 이하	94.9	3.7	1.2	4.9	0.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 이하	93.9	4.5	1.4	6.0	0.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00 이하	90.3	7.8	1.7	9.6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 이하	82.2	13.2	4.0	17.2	0.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0 이하	94.0	5.1	0.9	6.0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0 이하	70.3	18.5	5.8	24.3	5.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00 이하	82.2	12.3	3.7	16.0	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0 이하	61.5	21.3	9.0	30.3	8.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0 이하	80.8	13.8	5.0	18.8	0.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 이하	82.3	14.0	2.9	16.9	0.8
1차 금속 제조업	1,500 이하	75.5	16.3	6.2	22.5	1.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00 이하	89.1	9.7	1.1	10.8	0.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 이하	82.0	13.6	3.4	17.1	0.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 이하	86.3	10.5	2.8	13.2	0.5
전기장비 제조업	1,500 이하	87.4	10.1	2.1	12.2	0.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 이하	86.7	11.0	1.9	13.0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0 이하	70.9	20.8	6.1	26.9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00 이하	76.4	18.8	4.1	22.9	0.7
가구 제조업	1,500 이하	92.0	7.2	0.7	8.0	0.0
기타 제품 제조업	800 이하	95.4	3.9	0.6	4.6	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00 이하	95.1	0.8	4.1	4.9	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00 이하	99.6	0.2	0.0	0.3	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7.3	19.5	12.5	32.0	0.6
수도업	1,000 이하	-	-	-	-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800 이하	-	-	-	-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800 이하	64.2	20.7	14.5	35.2	0.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800 이하	84.3	9.3	6.5	15.7	0.0
건설업	1,000 이하	93.8	4.9	1.2	6.1	0.1
도매 및 소매업	1,000 이하	94.9	3.2	1.8	5.0	0.1
운수 및 창고업	800 이하	98.7	1.0	0.3	1.3	0.1
숙박 및 음식점업	400 이하	94.6	4.0	1.4	5.4	0.0
정보통신업	800 이하	87.8	9.8	1.8	11.6	0.5
금융 및 보험업	400 이하	93.8	3.7	1.1	4.8	1.4
부동산업	400 이하	99.0	0.5	0.4	0.9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0 이하	87.8	10.1	1.8	12.0	0.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8.4	8.9	2.4	11.4	0.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600 이하	82.2	14.5	3.0	17.6	0.3
사업 지원 서비스업	600 이하	89.0	8.2	2.5	10.8	0.3
임대업; 부동산 제외	400 이하	92.6	5.9	1.3	7.2	0.2
교육 서비스업	400 이하	97.3	1.8	1.0	2.7	0.0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 이하	65.5	17.4	17.1	34.5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0 이하	97.5	2.0	0.4	2.4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 이하	97.2	1.7	1.1	2.8	0.0

* 주: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포함하며 소상공인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산업중분류별·기업규모별 매출액과 기업수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4〉 업종별 기업규모별 비중(2022년)

(단위: 억 원, %)

산업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				
		소상 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대기업
전 산업		95.1	3.3	1.5	4.8	0.1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이하	95.9	3.7	0.3	4.0	0.1
광업	1,000 이하	89.4	6.1	3.9	10.1	0.5
제조업		88.9	8.4	2.3	10.7	0.4
식료품 제조업	1,000 이하	92.6	5.6	1.5	7.0	0.3
음료 제조업	800 이하	89.8	6.4	1.9	8.3	1.9
담배 제조업	1,000 이하	63.6	0.0	0.0	0.0	36.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00 이하	91.8	6.2	1.9	8.1	0.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 이하	96.0	3.0	0.8	3.8	0.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 이하	95.4	3.6	0.9	4.5	0.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00 이하	91.1	7.0	1.8	8.8	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 이하	83.1	12.2	4.2	16.4	0.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0 이하	95.0	4.2	0.8	4.9	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0 이하	68.8	16.5	9.5	26.0	5.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00 이하	83.0	11.4	3.9	15.2	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0 이하	63.2	19.9	9.2	29.1	7.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0 이하	81.1	13.3	5.1	18.5	0.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 이하	83.7	13.0	2.6	15.6	0.7
1차 금속 제조업	1,500 이하	75.9	15.5	6.7	22.3	1.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00 이하	89.4	9.2	1.2	10.4	0.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 이하	85.6	10.4	3.0	13.5	0.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 이하	86.9	9.6	3.1	12.6	0.5
전기장비 제조업	1,500 이하	88.0	9.3	2.2	11.5	0.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 이하	87.3	10.3	2.0	12.3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0 이하	74.4	18.1	5.5	23.7	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00 이하	78.3	17.7	3.4	21.1	0.6
가구 제조업	1,500 이하	92.4	6.9	0.6	7.6	0.1
기타 제품 제조업	800 이하	96.4	3.0	0.6	3.6	0.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00 이하	93.9	0.4	5.6	6.0	0.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00 이하	99.7	0.1	0.0	0.2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9.9	16.3	13.0	29.3	0.8
수도업	1,000 이하	-	-	-	-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800 이하	82.2	12.1	5.0	17.1	0.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800 이하	67.2	17.1	14.8	32.0	0.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800 이하	-	-	-	-	-
건설업	1,000 이하	94.9	3.9	1.1	5.0	0.1
도매 및 소매업	1,000 이하	95.6	2.5	1.8	4.3	0.1
운수 및 창고업	800 이하	98.5	1.1	0.4	1.4	0.1
숙박 및 음식점업	400 이하	95.1	3.4	1.5	4.8	0.0
정보통신업	800 이하	89.7	8.2	1.6	9.9	0.4
금융 및 보험업	400 이하	93.9	3.4	1.2	4.5	1.5
부동산업	400 이하	98.8	0.5	0.5	1.1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0 이하	89.4	8.4	2.0	10.4	0.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0.1	7.3	2.4	9.7	0.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600 이하	87.3	10.3	2.2	12.5	0.2
사업 지원 서비스업	600 이하	90.5	6.7	2.5	9.2	0.3
임대업; 부동산 제외	400 이하	92.0	5.8	2.0	7.8	0.2
교육 서비스업	400 이하	97.3	1.6	1.0	2.7	0.0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 이하	63.2	14.9	21.9	36.7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0 이하	97.7	1.9	0.4	2.2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 이하	97.5	1.3	1.2	2.5	0.0

* 주: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포함하며 소상공인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산업중분류별: 기업규모별 매출액과 기업수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